

현장시선



김 정 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근에 영국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다. 지구의 대멸종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였다.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지구는 생명을 품어왔고 그 과정에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대멸종들이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최악으로 거론되는 대멸종이 페름기-트라이아스기 대량절멸이다.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대멸종은 지구상의 96% 이상의 생명체가 사라졌다. 지구라는 행

기후위기가 반전되는 새해가 되길 희망한다

성이 존재해온 시간 동안 가장 끔찍한 최악의 대멸종이었다. 페름기는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로 중생대로 변하는 길목에 있었다. 바다와 육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분포했다.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에 생물들의 삶을 송두리째 뺏아 가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억51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멸종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화산 대분출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라고 본다. 이 학설에 의하면 엄청난 규모의 화산이 분출하면서 지중 내의 석탄을 태우고 막대한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해 물질이 대기 중으로 뿔어져 나왔다고 한다. 지구 평균온도는 급격히 치솟았고,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바다를 산성화하고 죽음의 지

대로 만들었다. 지구는 표면적으로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으로 변했다. 그렇게 서서히 지구상 생물 대부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 높아진 온도를 식히지 않는 이상 지구는 다시 생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지구가 생명이 살 수 있게 온도가 내려가고, 다시금 생명이 번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최소 1000만 년이라고 한다. 현재 인류문명은 과거의 페름기 대멸종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과학계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시기 대비 6도가 오르게 되면 지구상의 생물 95%가 멸종한다고 경고했다. 인류가 지금처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말에 지구 온도는 약 5도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더욱이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막지 않으면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감축해야 한다. 앞으로 6년 동안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멸종에 직면하게 된다. 지구가 얼마나 위기의 상황인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정부도 국회도 기업도 심지어 개개인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논의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대멸종을 막으려면 그만큼 거대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올해는 논의가 촉진되고 지금의 위기를 반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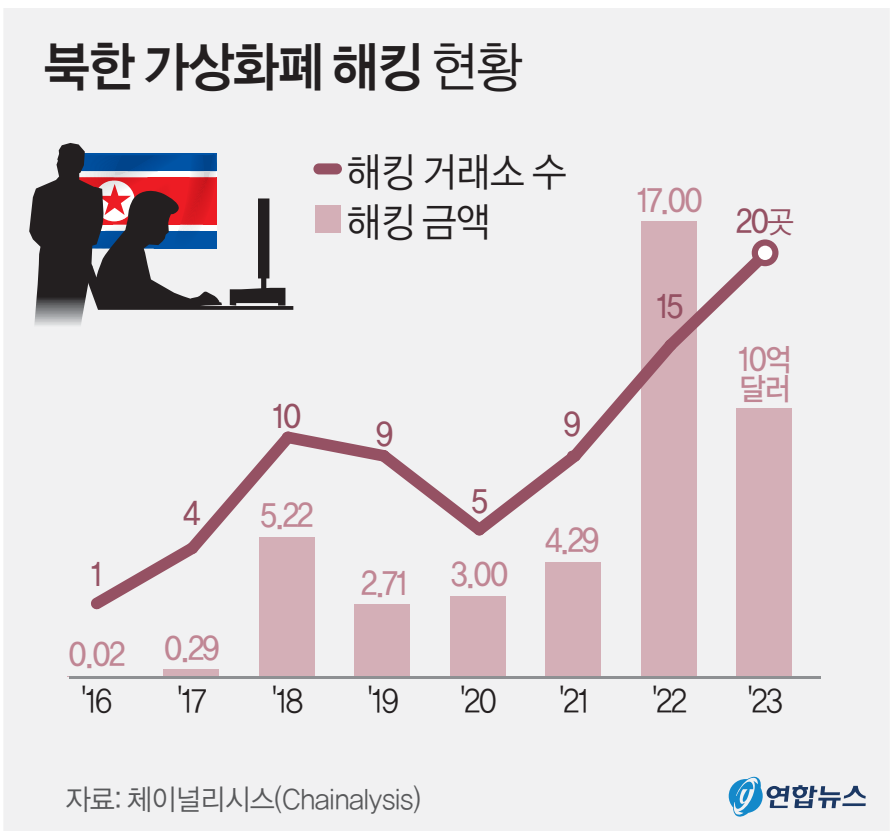
사설

상장기업 육성, 올해 가시적인 성과 내야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상장기업 육성사업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1차 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장 지원 참여 기업 중 10개사가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올해에는 제주에서 첫 상장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기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업의 역량을 사전 진단해 상장 필요 부분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상장정보 제공 및 저변을 넓히기 위한 기업성장(IPO) 클래스가 포함된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지원 협약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금융 지원, 전문가 풀을 활용한 상장멘토제를 마련하는 등 총괄지원체계를 갖췄다. 올해는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중장기 지원사업의 전환으로 지난해 10개사와 신규 5개사를 발굴해 총 1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 도정이 출범한지 올해로 3년차를 맞는만큼 상장기업 육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최근 '시도별 근로소득 연발산산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제주의 열악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제주지역 직장인의 1인당 평균급여가 357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시(4736만원)와는 1166만원이나 차이 난다. 이러니 제주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는 것이다. 지난해 9월까지 제주를 떠난 20대 순유출 인구가 1500명이 넘는다. 따라서 상장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이윤희**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심폐소생술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지창웅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급성심장정지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갑자기 심장 기능이 중단되어 혈액순환이 멈추는 상태로 급작스러운 사망 또는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을 높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04.2명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7.8%로 전국(31.5%)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환자 발생 시 목격

자에 의한 초기 응급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심장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처치가 이뤄져야 생존율을 높이고, 뇌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제주소방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1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특별구급대 운영 및 구급대원 교육 훈련으로 119대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024년 응급처치 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도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위급한 순간에 적극적으로 임해 도민의 골든타임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발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10 총선 공천과정부터 관심 가져야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임기 절반을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볼 수 있다.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모두 후보자 공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경선 후보자 선정 등 기준을 마련해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석의 제주지역도 예비후보군을 중심으로 최종후보자 가려지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주시갑과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제주시 을은 현재까지 1명의 예비후보만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만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이번 선거 후보자 공천 시 우선추천이 가능하

도록 공천 기준이 마련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 모든 선거구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3석 모두 현역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을과 서귀포시 선거구는 현역 단독으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다만 제주시갑은 3명의 후보가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어느 정도 공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천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당 내부일이라고 치부해선 안될 일이다. 유권자들도 당내 경선 등에서부터 검증에 동참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는 선량이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감시역할도 유권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부고

문영기 어머니 창녕조씨 규애(향년 93세)께서 서기 2024년 1월 23일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4년 1월 26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4년 1월 27일(토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중앙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이호동 소재)
- ▶장 지: 양지공원

아들 문영기 며느리 강성희
딸 문미란 사위 모상호
영순 김덕용

※ 연락처 : 문영기 010-3697-4045
중앙병원장례식장 064-721-1000

부고

현종필(한라일보 부장) 어머니 군위 오씨 금자(향년 87세)께서 서기 2024년 1월 24일 03시 55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4년 1월 26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4년 1월 27일(토요일) 오전 10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3층)
- ▶장 지: 양지공원

아들 현종환 며느리 박순화
종필
딸 현옥자 사위 강승문(☎)
옥심 김용만
옥숙 이창욱(☎)
옥생 장영근
미선 변용식
미란 김동영
미양 신동윤

※ 연락처 : 현종환 010-3696-5581
현종필 010-3694-3940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천광태양광발전소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고성리 26, 27, 29, 선58, 선59, 선60
 - 면적 : 9,303㎡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별 설비용량

발전소명	설비용량	비고
천광태양광발전소	999.44kw	
합계	999.44kw	

 - * 준공 시 모듈용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개시예정일 : 2024년 7월
 - * 환경 선로 연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김석훈 (연락처 : 064-713-6405)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 2024년 2월 2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 서면작성하여 E-MAIL (mrsp88@naver.com) 또는 FAX (064)713-6406 제출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척추 허리골반

중풍마비(실어증), 어깨, 엉치, 다리통증, O.X다리, 키크기, 성장 교정
1회 체임으로 대만족
Snpe, 활력도비술, 정통고려활법전승계승자
대한활법연맹
010-7121-8275

산란계 양계장의 기적
황칠 발효액

- ① 산란시기가 1개월이상 빠름
 - ② 양계장내 약취 90%이상 중화
 - ③ 소화흡수율이 높음
 - ④ 혈액순환 촉진 및 간기능 개선
 - ⑤ 지방축적감소
- ※ 동물 자체시험 결과임 ※
임상시험 원하시는 양계장에 약4개월간 월가 공급 예정
- 왕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를 70대 수의사(김상홍) 개발중
- 문의전화 010-5169-452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